기우뚱해도 웃으며 말할 여유 생겼다

시 이도훈

올해는 나에게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시를 쓰기 위해 차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시잡지 '시마(詩魔)'를 창간한 해이기도 하다.

'순환선'은 제목에서 연상되듯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환승역을 한참 지난 후 되돌아오면서 쓴 시이다. 늦어진 약속시간엔 좋은 핑계가 생겼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하는 수 없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바쁜 것'인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시를 썼다.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이미 단련되어 있어서 나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순환이란 말을 우리 삶에 비춰보기로 했다. 하루가, 일 년이, 한 생애가 우리에게 순환이라고 생각한다. 그 바쁜 일과 중에서 잠시 느릿느릿 가보고도 싶었다.

지구가 아무도 모르게 기우뚱거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집에 뭔가를 놓고 나왔거나 환승역을 지나친 것이라고 웃으며 말할 여유가 생겼다.

한라일보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대구 교수님과 함께 시 공부를 한 온새미로 동인들, 네이버 문학카페 시산문, 시마 회원들께 감사하다. 특히 한국시인협회 윤석산 회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본명 이양훈 ▷1971년생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온새미로 동인 ▷시마(詩魔) 발행인

이제 출발선, 힘찬 항해 시작하겠다

시조 이선호

지역번호 064. 누굴까? 순간 머리가 멍했다. 그날 저녁 8시쯤 한라일보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고 응모작에 대해 몇가지를 물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긴 시간을 보낸 후, 이튿날 비로소 당선 소식을 들었다.

먼저 아내에게 알린 뒤 세 자녀에게도 차례로 소식을 전했다. 모두들 기뻐했다. 완성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시작됨에 감사하다. 지난 수많은 날들, 시조와 함께한 시간들이 뇌리에 스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한 보이지 않는 친구, 시조가 고맙다. 시조란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매년 말, 원고를 부치러 우체국에 갈 때마다 설레이곤 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언젠가 당선통보가 나에게도 온다'는 말을 수 없이 되뇌었다. 아득하게 여겨졌던 문단의 세계, 그 말석에 섰다. 내 안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시조라는 정형의 세계에 녹여내겠다.

걸음마 밖에 할 줄 몰랐던 저를 걷게 해 주신 윤 교수님, 고비 때마다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았던 목요모임 학형들, 모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어설프지만 힘찬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과 한라일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 충남 보령 출생 ▷한국성서대학교 졸업(신학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제35회 샘터상 수상, 중앙시조백일장 2회 입선 ▷현 아름요양보호사 교육원 전임강사

소설은 숨구멍이자 인생 항로 나침반

소설 이은향

3년을 꼬박 파지를 생산했다. 밤 9시에서 새벽 5시까지 어김없이 노트북에 앉았고, 생산 공장의 여공처럼 빈 여백에 빽빽한 언어로 그날의 할당량을 채우고서야 새벽녘에 간신히 눈을 붙였다. 음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내게 뜻밖의 기회에 찾아온 소설 습작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첫사랑과 해후한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턴가 소설은 내게 숨구멍이자 인생 항로의 나침반이 되었고, 작가로서의 원대한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때부터일 것이다. 공모전에 낙방을 거듭하면서도 열정이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당선 소식을 접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찡하게 울리며 여러 사람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갔다. 특별히 친정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에게 당선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다. 소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동리목월문학관의 이채형 교수님과 김이정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린다. 밀도 있게 문장을 쓰라고 강조하시던 울산의 이충호 교수님과 내게 힘이 되어준 시몬방 문우들, 마지막까지 작품을 읽어준 스토리클럽의 박형철 회장님과 이정은 선생님에게도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부족한 글에도 가능성을 발견해주신 한라일보와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매진하여 감동을 주는 작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본명 이은정 ▷1970년 경주 출생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동리목월 백일장 산문 일반부 장원 ▷제11회 포항소재문학상 수상 ▷2019년 한국소설 신인상

열차 순환선에 숨 멎은 도시인의 삶

심사평

본선에 올라온 작품들은 합당한 길이에 반해 너무 긴 것들이 많았다. 표현하려는 내용에 걸맞은 길이가 아니라 신춘문예를 의식해서인지 길게 잡아 늘려 집중력과 긴장감이 떨어지곤 했다. 이는 오래 하는 지루한 얘기나 수다처럼 읽는 이를 힘들게 한다.

최종심에 오른 '섶섬이 보이는 풍경'(김영욱)은 상당 부분 사물을 의인화함으로써 대상을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고는 있으나, 길게 이어지는 묘사가 어떤 울림으로 연결되지 못해 아쉬웠다. 또 이런 묘사 방법은 이즈음 많이 차용되는 것이어서 새로움이 덜했다.

'로제트 식물'(노수옥)은 무리 없는 상상력의 전개와 시를 이끌어나가는 여유로움이 믿음을 주게 하나, 대상과 화자의 균형이 깨어져 이질감을 보였다. 같은 이의 '시침, 뚝'은 절제된 시각으로 매력 있는 언어 구사를 하고 있는 반면 시인의 의도가 잘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노래를 잘 해요'(김미경)는 4·3의 아픈 가족사를 긴 서사의 담화체로 생기 있게 노래하고 있지만 노래가 너무 길다. 그 노래를 다 들으려면 힘이 빠질 것 같다. 1~6번까지 붙인 것을 2개 정도로 줄이고 좀 더 다듬었다면 당선작과 겨뤘을 것이다.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의 슬픔을 여러 상상의 빛깔로 수놓은 '돌, 어슴프레한'도 일정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도훈의 시들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외피 안에 잘 녹아 있음을 보여준다. 옷 입은 이와 그의 옷이 썩 어울리는 것이다. 선자들이 당선작으로 합의한 '순환선'에서는 숨 멎은 한 도시인의 삶이 열차의 순환선에 비유되고, 그것은 마침내 읽는 이로 하여금 일상의 반복적 삶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적절한 언어를 배치하는 역량이 그의 다른 시들에 고루 나타나 있는 점도 그를 당선자로 정한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힘들지만 행복한 시의 길에 들어서려는 분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악수를 건넨다. 머지않아 시의 순환선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김병택(시인·평론가)

나기철(시인)

난민과 유향나무 통해 시대 아픔 공감

심사평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 시인을 내보낸다. 예심을 통과한 11명의 작품을 숙독했다. 오랜 논의 끝에 4편을 가려냈다.

'호두 그리고 매미'(정경화)는 명징한 이미지와 투명한 시어가 절묘하게 결합된 가편이다. 호두와 말매미, 산돌과 호두 씨앗이 잘 엮였고, "말매미 더늠 대목", "푸른 이마 언저리쯤 두레박을 퍼 올리고"가 주는 울림이 컸다. 게다가 여름 한낮 말매미가 "공명실 한껏 조였다 단숨에 풀어낼 때", "온 우주가 익는 소리"에 이르러서 잠시 숨을 멈추게 했다.

'운주사의 달'(이봉렬)에서는 시상을 자연스레 끌어가는 능력이 돋보였다. 세 번째 수 종장에 이르러 "폐경기 겨울 산속에/ 확!/ 불 지른다/ 진달래가"에서 시선이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시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시편이 낯익다는 뜻이다.

'일출'(김종순)은 새해 새 아침을 여는 작품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작품은 일출의 장면을 노트북 화면과 대비 시켜 그 효과를 세 번째 수 종장 "눈부신 절창 한 구절/ 뿌리째 뽑아 올린다"로 극대화하지만, 드문드문 의미망에 따른 음보가 다소 불안하고 긴장감이 덜했다.

'유향나무, 탐라에 서다'(이선호)는 '지금·여기'에 기반을 둔 사회상을 유향나무를 통해 잘 그려냈다. 유향나무는 아라비아반도 예멘이 주산지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외면하지 않았다. 언뜻 거친 표현도 눈에 띄지만, 그게 작품의 현장성을 높이는 효과로 읽히기도 했다. 유향나무의 밑동이나 난민의 다목다리는 차가운 땅 바람에 시리지 않을까. 무비자인 난민과 유향나무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아픔에 공감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높이 샀다.

'시인은 모름지기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며 이선호의 '유향나무, 탐라에 서다'에 힘껏 방점을 찍는다. 건필을 기원한다.

고성기(시인)

홍성운(시인)

발라드 선율 같은 감성 자극하는 흡인력

심사평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14편이지만 대부분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 사건과 시간의 흐름, 인물들 사이가 모호하거나 유기적 연결고리가 단절돼 구심력이 없었다. 언어와 서사, 예술성이 교집합을 이루지 못했다. '파란 방', '검은 수첩', '버스커, 버스커' 3편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파란 방'은 드물게 보는 산악 등반소설인데, 대화가 느슨했고 전체 내용 및 구성도 압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후, 방 색깔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본 에피소드는 작위적이고 개연성이 결여됐다. '검은 수첩'의 여자 주인공은 여러 번 남자들에게 성희롱과 폭력을 당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기력하고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삼사십 년 전 시대의 정물화 같은 인물에 머물렀다.

당선작 '버스커, 버스커'는 발라드 선율 같은 감성을 자극하는 흡인력이 있다. 구성이 탄탄하고 문장이 안정되어 있다. 주인공은 여고를 졸업한 후, 보컬학원을 나와 '작은 도시의 역 광장'에서 버스킹 팁으로 생활하며 발라드 가수의 "황홀한 데뷔"를 꿈꾼다. 가수, 작곡가였던 아버지가 '나'에게는 큰 희망이지만, 서른 살에 접어든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와의 경계에서 방황 중"이다. 게다가 '불파'라는 락밴드가 역 광장에 출현하면서 그들과 버스킹 시간을 놓고 갈등을 빚는다. 광복절 날, 역 광장에 모인 시위대에서 울려퍼지는,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를 접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막걸리 몇 병과 맞바꾼 노래가 데모가[-歌]'가 됐던 그 곡이다. 그리고 '불파'의 합류 제의를 받은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아버지의 음악 작업실이면서 서재, 침실이었던 벙커 같은 골방과 '지진으로 피사의 탑처럼 삐딱해진 건물'의 사글세방, 수많은 군상의 교차로이면서 '나'와 '불파' 그룹의 버스킹 장소인 역 광장은 핵심 화두의 메시지가 함축된 공간 배경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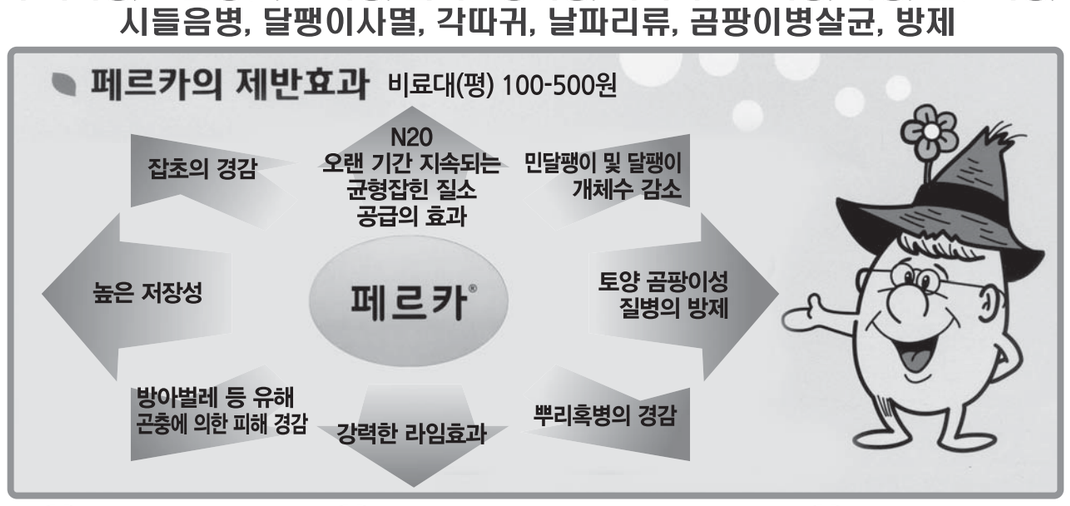
고시홍(소설가)

이순원(소설가)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